

임성재·안병훈·김주형·김시우...PGA투어 PO 출사표

세인트루즈 챔피언십 16일 개막 페덱스컵 랭킹 올리기 관건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시즌 최고 선수를 가리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맴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리는 페덱스 세인트루즈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은 BMW 챔피언십, 그리고 투어 챔피언십 3개 대회 구성된 플레이오프의 첫 대결장이다.

정규시즌 페덱스컵 랭킹 포인트 상위 70명이 출전하는 페덱스 세인트루즈 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페덱스컵 랭킹 상위 50명만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 나설 수 있다.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은 BMW 챔피언십 페덱스컵 랭킹 30위 이내 선수에게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3개 대회 모두 최정상급 선수들이 컷없이 나을 동안 열전을 치른다.

한국 선수는 임성재, 안병훈, 김시우, 김주형(이상 페덱스컵 랭킹 순) 4명이 출격한다.

임성재는 정규시즌 페덱스컵 랭킹을 9위로 마쳐 10위 이내 선수에게 순위가 나눠주는 컵게스트 비즈니스 보너스 220만 달러를 받고 기분 좋게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선다.

임성재와 안병훈(12위)은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은 안정권이고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도 무난할 전망이다.

임성재는 6회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도 사정권이다.

투어 챔피언십은 랭킹이 높을수록 낮은 타수로

시작하기에 1차전 페덱스 세인트루즈 챔피언십에서 최대한 페덱스컵 랭킹을 끌어올리는 게 요긴하다.

38위 김시우와 43위 김주형은 일단 페덱스 세인트루즈 챔피언십에서 상위권에 들어 BMW 챔피언십 출전권을 굳히고 투어 챔피언십 출전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과제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우승이다. 우승하면 360만 달러라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번 시즌에 빼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 70명만 추려서 치르는 대회라서 우승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까지 손에 넣은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PGA 챔피언십과 디오피 등 메이저대회에서 2승을 올린 젠더 쇼플러(미국), 세계랭킹 3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PGA투어닷컴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3번이나 정상에 오른 매길로이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다. 셰플러는 2순위, 폴린 모리카와(미국)가 3순위, 그리고 쇼플러를 우승 후보 4순위에 올려놨다.

임성재는 우승 후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LIV 골프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스펀 스프링스의 울드 화이트 옛 그린브라이어(파70)에서 이번 시즌 12번째 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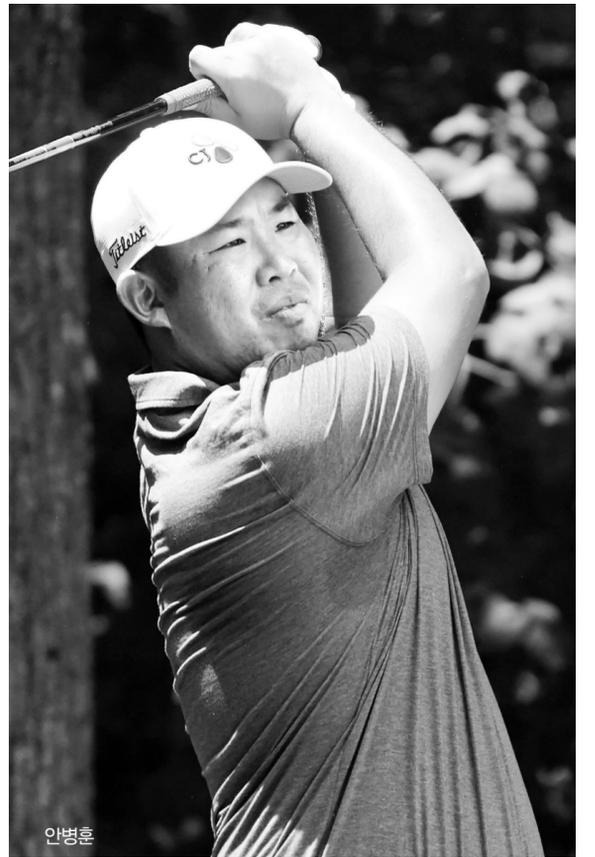
US오픈 챔피언 브라이슨 디샬보(미국)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디샬보는 작년 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2언더 파 58타를 쳤다.

/연합뉴스



임성재



안병훈

‘파리 올림픽 금’ 리디아 고, LPGA 시즌 2승 도전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 15일 개막 고진영·김효주·김세영 등 출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최연소 입회자를 확정짓는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가 내친김에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리디아고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영국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 ISPS 한다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22일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 오픈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리디아고는 올림픽에서 열전을 치른 피로보다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얻은 자신감과 활력이 더 큰 상태다.

지난 1월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며 힘차게 시즌을 시작했던 리디아고는 여름부터 부진에 허덕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한 CPKC 여자오픈에서 공동 8위에 오르다가 9개 대회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세계랭킹은 7위에서 22위로 밀렸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보란 듯이 우승하면서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마지막 1포인트를 채우는 등 화려하게 되살아났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던도널드 링크스는 파리 올림픽이 치러진 2년 전인 2016년 리디아고는 2주 연속 승전보를 기대할만하다.

리디아고는 지난해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2021년 준우승, 2022년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이 대회에 좋은 추억이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고진영과 김효주는 설욕에 나선다.

김효주는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도 씻겠다는 다짐이다. 김효주는 2022년에도 3위에 오르는 등 이 대회에 유난히 강했다.

김세영, 최혜진, 안나린, 신지은, 이미향, 임진희, 김효주, 김아림, 이소미, 전지원, 강혜지도 출전한다.

고진영과 김효주뿐 아니라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각각 간판급 선수 상당수가 프랑스에서 곧장 스코틀랜드로 넘어갔다.

특히 파리 올림픽에서 첫날 선두에 나섰지만 결

국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쉐린 부티에(프랑스)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부티에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김효주의 추격을 2타차로 따돌렸다.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아문디 예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루모 아야카(일본)는 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바라고 출사표를 냈다.

후루모는 2022년 이 대회에 LPGA 투어 첫 우승을 따냈다.

파리 올림픽에서 리디아 고에 이어 은메달을 탄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체중·고, 전국핀수영대회 메달 휩쓸어

광주체중·고 핀수영 선수단이 '제36회 전국중별핀수영선수권대회'서 메달을 휩쓸며 선전했다.

먼저 광주체고에서는 손준영(3년)이 남고부 짝핀 2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홍수진(3년)은 여고부 표면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경현(1년)은 여고부 무호흡 잠영 50m에서, 이유정(2년)은 여고부 짝핀 200m와 400m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김지은(2년)은 여고부 표면 50m와 100m에서 2위에 올랐고 계영 400m에서도 윤만나·이시울(이상 2년), 홍수진(3년)과 함께 은메달을 합작했다.

홍수진은 여고부 표면 4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장호(3년)는 남고부 짝핀 50m에서 동메달에 이어 혼합 계영 400m에서 윤만나, 이유정(2년), 손준영과 동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체중의 활약도 이어졌다.

서시형(3년)은 남중부 표면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표면100m에서는 신재이(3년)가 1위에 올랐다.



광주체고 핀수영 선수단이 전국중별핀수영선수권대회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여중부 계영200m에서는 신재이, 윤효정(2년), 손호서(3년), 손민서(3년)가 금메달을, 혼합 계영 400m에서는 서시형, 손호서, 강윤호(1년), 윤효정이 금메달을 합작했다.

윤효정은 여중부 무호흡 잠영 50m에서, 신재이는 여중부 표면 200m에서, 손호서는 여중부 표면 50m에서 각각 은메달을 더했고, 최성연(2년)은 남중부 무호흡잠영 50m 은메달, 남중부 표면50m에서 동메달을 더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조선대 배준석, 세계품새선수권 국가대표 선발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태권도학과 배준석(2년)이 '2024년 홍콩 세계품새선수권대회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지난 5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품새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배준석은 남자 개인전 30세 이하부 3위에 올라 홍콩 세계품새선수권대회 3인조 단체전에 출전하게 됐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태권

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0세 이하 부에 1-8위에 입상한 선수들이 출전해 최종선발전으로 진행됐다.

한편, 하인숙(광주시태권도협회)은 이번 대회 여자 개인전 60세 이하부 3위에 올랐다.

30세 이하부를 제외한 각 부에서는 2-3위 선수들이 다시 참가 신청을 해 순위를 가려 단체전에 참가하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피어오르다
시공주최(예술의전당)